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1: 알렉산더까지의 페르시아 제국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

안녕하세요,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입니다. 신약 성경: 역사, 문학 및 신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 번호 1: 과목 소개 및 알렉산더 시대까지의 페르시아 제국 역사에 대해 강의합니다.

A. 서론-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구약성서 배경) [00:00-2:13]

A. 서론,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짧은 영상: AD 결합; 00:00-9:50]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 힐드브란트입니다. 저는 신약 역사, 문학, 신학에 관한 이 과정의 강사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든 칼리지에서 진행됩니다. . 오늘은 과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입니다. 페르시아인으로 시작해서 그리스인으로 내려가고, 그리스인, 알렉산더 대왕, 하스모네아와 마카비 시대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헤롯 대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로 신약의 배경을 설정하는 역사적 개괄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신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신약이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께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될 때, 그것은 놀라운 진술이고, 만약 누군가가 요한복음 1:29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요한 세례자의 진술과 희생 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구약에서 유대교의 레위 운동에서 나온 성전 숭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신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진술, 즉 NIV가 번역한 “보라”가 포함됩니다.

B. 선지자적 제도의 정점이신 예수 [2:14-5:09]

하지만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구약 제도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첫 번째 제도는 선지자의 제도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훌다가 있을 것입니다. 12명의 선지자 중 많은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그런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선지자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오실 선지자는 --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보다 먼저 올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 하지만 그러면 메시아 자신이 선지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로고스* 입니다 .

선지자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반면, 예수는 말씀하실 것이고, 요한은 예수에 대해 그가 *로고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말씀" 또는 이 "계시", 이 로고스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말로가 아닌 예언적 메시지를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예수는 말로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는 성육신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을 성육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일종의 궁극적인 선지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며, 이제 육신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예언적 제도의 절정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에서, 구약성경이 끝나갈 무렵,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기원전 400년경에 "이 선지자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올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말라기는 기본적으로 엘리야가 주의 날 전에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올 엘리야입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선지자에 대해 말하고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지만,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너희가 들으면”.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은 구약을 끝냅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주님의 날을 알리는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C. 왕이신 예수님 - 다윗의 아들 [5:10-7:00]

그래서 예언적 기관의 절정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는 다윗의 더 큰 아들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노래하면서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사무엘하 7장 14절로 돌아가서 다윗의 아들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을 다윗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는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찾고 있는 다윗의 더 큰 아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그의 책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땅과 씨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씨가 번성할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민족에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 될 것이다. 즉,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될 것이다. 심지어 헤롯도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물론 그것은 예수일 것이다.

예수가 죽으면,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이 왕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머리 위에 “여기 유대인의 왕 예수가 있다”라고 쓰인 표지판을 붙일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에 반대하고 표지판을 내리기를 원할 것이지만, 통치자들은 “아니, 내가 쓴 대로 표지판은 서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역할을 채울 것입니다.

D.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7:01-9:50]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세 번째 제도는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왕이라면 그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지만, 만약 그가 제사장이 되려면 그는 아론의 혈통이나 레위 지파, 또는 사독의 제사장직에 속한 레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에서 아론 제사장, 사독과 같은 제사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나중에 이것을 이어받아 “ 잠깐만요,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사제는 무엇 을 합니까? 사제는 기본적으로 희생 제도, 종교, 희생 제사, 축제와 함께 일합니다. 사제는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사제는 토라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신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희생 제사를 통해 사람들을 위해 중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을 가져왔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그것들을 제단에 올려 신께 바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제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 신께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제 자신이 신의 어린 양이며, 그는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피상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신약을 살펴보면 여러 지점에서 “신약은 어떻게 예시되어 있고 구약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깊이가 생겨서 전통의 깊이와 신약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기관들 중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로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도 전체, “보라,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바로 앞서서 예수님의 주된 기능인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위한 큰 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죄를 제거할 것입니다 .

E. 신약성서 저자들-증인의 다양성 [9:51-14:31]

나. 신약성서의 증인 다양성, 적절한 시기 [짧은 영상: EG 결합; 9:51-18:35]

이제 신약성경에는 다양한 저자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유다,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실제로 매우 다양합니다. 신약성경은 모든 것이 일치하도록 엄격하게 편집된 단일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신약성경은 실제로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논의해 온 저자 간의 특정 갈등과 함께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느니라” 와 마가복음 4장 12절을 비교해 보면, “어떤 비유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가들 간의 또 다른 갈등은 “예수께서 어떻게 모세의 식이법을 폐지할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9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이 지금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주장하고 누가도 주장합니다. “율법의 한 점이나 한 조각, 한 점이나 한 조각, 작은 스랍이라도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식이법에 대해 예수께서 식이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고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꾸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한 조각도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십니까? 조화시키도록 의도된 것입니까? 모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완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의 것들을 어떻게 함께 배치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꽤 오랫동안 혼란스럽게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15:6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로 믿음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의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로 가서, 바울, 로마서 4:5와 다른 곳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동일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아니요, 믿음만으로는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할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달려가서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고, 행위로 인정받지 아니하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바울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함께 놓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저자,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직면한 상황과 야고보가 직면한 문제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 바울은 어떻게 종도 자유인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28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종들에게 지상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그는 실제로 오네시모를 노예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28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바울이 다른 메시지를 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F. 신학적 차이점 [14:32-17:21]

신학에서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행전에서 주장하는 영광의 신학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행전은 영광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 바울의 십자가로 가는 길과 어떻게 맞을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가-행전은 영광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함께 놓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미래, 새로운 언약을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는 구약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확산입니다. 구약의 열 지파가 722년에 아시리아인에 의해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586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들어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을 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데려올 것이고,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썄요,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하지만 바울의 서신은 유대인들이 정죄받고 있으며, 많은 이방인들이 마음을 회복했으며, 새 언약은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시겠습니까? 유대인의 기초는 세상으로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새 언약 약속을 교회와 이방인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과 상황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신약성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동의하도록 주의 깊게 편집된 단일 편집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멋진 점 중 하나는 각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갈등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화를 이루고 매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저자의 거칠고 난폭한 모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일종의 확인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대로 두었고, 매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저자들 간의 긴장감을 살펴보고 알아차리고 싶을 것입니다. 대체로 서로 다른 저자는 서로 다른 관점과 성격으로 글을 씁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글을 씁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G. 적절한 때의 예수님 [17:22-18:35]

글쎄요, 이제 문화적 변화를 좀 봅시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 우선 이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놀라운 구절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셨느니라.” “때가 차매.” 이 강좌의 첫 부분에서 이 “때가 차매”에 대해 자세히 강의하고 싶습니다. “때가 차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셔서 TV에 내보내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하실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정확히 적절한 때에 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이밍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께서 “정확한 때에 오셨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 갈라디아서 4장.

H.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질문 [18:36-22:21]

C. 역사적 배경, 문화적 맥락 [짧은 영상: HI 결합; 18:36-25:27]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몇 가지 초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연구를 하고 싶으므로, 기본적으로 신약에서 벗어나 신약 이전의 역사적 연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키에 대한 기원전 400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종종 그를 “말라키: 이탈리아 예언자들의 마지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아마도 기원전 5년경에 태어날 것입니다 .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기원전 0년에 태어나지 않은 이유는 '기원전: 우리 주님의 해인 그리스도 이전; 기원후: 그 이후' 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기원전-기원후 체계를 알아낸 사람은 기원후 625년경이었고, 그는 그리스도 이후 600년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사실을 알아냈을 때, 사실 그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해할 수 있듯이, 그는 600년 후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아냈을 때 그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양한 것을 통해, 제 생각에는

일식을 통해, 이런 일식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헤롯이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경에 죽었고, 따라서 예수는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마 기원전 5년경에 태어났을 겁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기원전-서기 시스템을 알아내던 625년에 그 사람은 5년 정도 놓쳤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점은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이고, 그리스도는 약 0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의 해"라고 불리는 약 40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입니다. 사실, 그것은 실제로 침묵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많은 문헌이 있고, 우리는 신약을 구성하는 역사와 사물 중 일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구약성서는 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을까요? 구약성서의 선지자들과 모세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으로 가서 아람어를 배웠습니다. 따라서 구약성서에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사용됩니다.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와 같은 일부 책에는 아람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히브리어이고 끝 부분에는 아람어가 약간 들어갑니다. 신약성서에 이르면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집니다. 그리스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셈어족 언어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과는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모두 셈어족 언어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아랍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반면 그리스어는 서양 언어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리스어는 라틴어의 배경 역할을 합니다. 라틴어는 그리스어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고, 궁극적으로 라틴어는 로망스어로 전락했고, 심지어 영어도 앵글로색슨어와 여러 다른 것들이 섞인 라틴어를 일부 차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 그리스어로의 전환을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언어 전환은 이제 “글쎄,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첫째, 언어는 중요하고 언어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전달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셈어에서 서양

언어로의 언어 전환은 또한 문화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동양 문화, 셈어 문화

, 근동 문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레바논, 아주 동쪽에서 서양,

유럽, 로마, 그리스 방식으로 말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 그리스어로의 전환을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I. 문화/종교적 맥락에 대한 질문 [22:21-25:27]

또 다른 질문은 “셈족 히브리 문화가 헬레니즘이나 그리스 문화로 전환해야 했을 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입니다. 그리스 문화는 기본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알렉산더 더 그레이프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환은

서구 헬레니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라기(기원전 400년)와 신약 시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신약의 많은 부분이 서기 50년에서 서기 90년 또는 9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400년에서 서기 5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중간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당 같은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성경에서는 회당에 대해 읽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읽을 때는 예수님이 계속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읽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구타당하고, 그런 다양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당은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성경에는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성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성경에서는 성전과 회당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인은 누구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왜 그렇게 적대감이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듯합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서로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은 무슨 일인가요? 사마리아인은 왜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은 왜 사마리아인을 미워할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번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지만, 다른 시점에서 바리새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바울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메시지는 많은 개종자들이 바리새주의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이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제 뛰어들어 그리스도 시대보다 400년 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요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그래서 요점을 놓쳤지만,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유대인을 미워했을까요? 유대인은 왜 사마리아인을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외에도 다른 그룹들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이 아닌 다른 그룹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중 일부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J. 페르시아 제국의 지리 [25:27-28:50]

D. 페르시아 제국의 지리, 바빌로니아, 소아시아, 그리스

[짧은 영상: JL 결합; 25:27-36:33]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성서는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 이 경우 코이네 그리스어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리학: 사물이 있는 곳을 설정하는 것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물은 지리에 따라 설정됩니다. 저는 뉴욕 버팔로/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뉴욕 버팔로/나이아가라 폭포, 그곳의 문화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눈, 겨울 사람들의 집 위로 눈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잉글랜드에 오셨는데, 뉴잉글랜드의 상호작용 특성이 매우 다릅니까? 뉴욕시는 로스앤젤레스와 다릅니까? 루이지애나는 뉴올리언스의 문화가 시카고의 문화와 다릅니까? 시카고의 문화가 마이애미의 문화와 다릅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다른 지역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리는 문화와 출신지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와 비슷한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몇 장의 지도를 살펴보죠. 여기 첫 번째 지도가 있고, 저는 이 지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리는 지도입니다. 우리는 키루스 대왕을 볼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위대한 페르시아인 중 한 명입니다. 그 뒤를 이어 다리우스라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이 와서 조직을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세르크세스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는 그런데 에스더와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중동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동쪽으로 가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인더스 강입니다. 인도의 인더스 강은 여기, 이 인더스 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곳은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그리고 지금 이란인들이 아랍인이 아니고 셈족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실 백인이고, 그들 중 많은 수가 러시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페르시아인이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인은 오늘날 이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은 셈족 배경이 아니라 백인이나 아리아 배경이며, 셈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곳은 메디아-페르시아입니다. 베히스툰 비문이 여기에 쓰여 있고, 수사가 여기에 있고, 페르시아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산입니다. 여기는 산악 지형이고, 그런 다음 산에서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이 계곡은 이렇게 넓을 것입니다. 여기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들을 기억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ET 영화에서 ET를 기억하십니까? ET라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인 셈이죠.

K. 신약성경의 지리학: 아시리아, 바빌론, 시리아, 소아시아 [28:50-34:08]

그리고 아시리아 바로 여기 위쪽에 니네베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
우리는 요나와 고래, 그런 종류의 것에서 니네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니네베는 여기 위에 있고, 바빌론은 여기 아래에 있을 겁니다.
바빌론의 이미지는 요한 계시록에도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끝에서 이것을 다룰 것이고, 여전히 여기에서 옛 바빌론의 메아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며, 비옥한 초승달은 시리아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오늘날까지도 시리아입니다. 여기는 소아시아가 될
겁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또는 터키라고 부를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터키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 둘이 다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웃과 싸우죠. 그래서 여기 시리아와 이스라엘도
이웃과 싸우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이집트는 "나일의 선물"입니다. 이집트는
또한 고대 세계의 "곡창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밀과 보리를
제공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곡창고"로 여겨졌습니다. "나일의 선물"인

이유는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나일 강의 작은 리본을 제외하고는 어디를 봐도 갈색, 갈색, 갈색입니다. 나일 강은 파라오와 이집트가 있던 곳이고 "내 백성을 놓아주오"라고 하며 모든 탈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멤피스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멤피스가 왕이 묻힌 곳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왕, 엘비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테네시주 멤피스입니다. 그리고 엘레판타인입니다. 엘레판타인에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엘레판타인이라는 곳에서 유대인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훨씬 남쪽에 있는 엘레판타인이라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초기부터 한 일 중 일부는 엘레판타니 파피루스가 될 것이고,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가봅시다.

리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아마르 카다피와 그곳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리비아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페르시아만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 여기 아주 좁은,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인의 후손인 이란인들이 이곳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석유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그곳에서 나오고, 그들이 봉쇄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공모함을 그곳에 주차시켜 아라비아해와 다른 것들로 가는 이 통로를 열어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그리스가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 -- 파르테논 신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 스파르타인 -- 스파르타인은 여기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올림포스 산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제국 전체를 가진 페르시아인들이 조심하세요, 그들은 실제로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를 차지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쪽으로 밀고 나가려는 것과 그리스인들이 그들을 막으려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기기 위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스인, 이 작은 그리스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 보세요, 이 제국 전체를 차지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올 곳입니다.

이제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성 사진과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이 산악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비옥한 평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산간 사람들이 항상 평야로 내려와 평야를 정복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평야 사람들은 항상 산간 사람들을 산 위에 두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란 대 이라크이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입니다. 여기는 바빌론이고, 저 위에는 니네베가 있고, 저쪽에는 시리아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이고,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벌어질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아시아, 저 위에는 터키, 저 아래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나일강 삼각주의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나중에 정말 중요한 도시가 생길 텐데,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릴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할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서관 중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고대 세계의 의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종의 지도이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 길에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는 개종 경험을 할 것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크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그들과 다양한 연결을 볼 것입니다.

L. 고대 그리스의 지리 [34:09-36:32]

그리스의 클로즈업입니다. 여기서 두 지역을 다루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는 터키의 서부입니다. 그리고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스미르나,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와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들을 말했듯이, 그들은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으로, 터키 서부에 있는 일곱 교회를 다룹니다. 여기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쓴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은 터키 서부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후반에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북쪽으로 건너가면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의 빌립, 알렉산더는 저쪽 출신입니다. 여기가 빌립보가 있을 곳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바울이 그곳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상당히 지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하고 싶어서 여기로 내려올 것입니다. 아테네는 많은 고전 그리스어가 있는 곳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 아테네, 고전적 것들. 그리고 여기 고린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만에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아카이아와 기본적으로 펠로폰네소스가 분리됩니다. 스파르타는 훨씬 남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인과 아테네인은 여기와 여기에서 서로 싸우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중간에 있습니다. here를 가로지르는 작은 지협을 통해 양방향으로 교통이 통할 것입니다. 올림포스 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올림포스 산, 제우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파르타, 아테네, 고린도. 고린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스파르타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기본적으로 그들은 왔다 갔다 하며 우리는 다양한 것을 볼 것입니다. 여기는 에게해 지역입니다. 에게해와 지중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지도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일 뿐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리적으로 우리의 발을 땅에 딛고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M. 페르시아인의 부상 [36:33-40:05]

E. 페르시아의 부상: 키루스 BBBLE

[짧은 영상은 MS를 결합한 것입니다; 36:33-56:38]

이제 지리에서 벗어나 역사로 돌아가 이 기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인의 부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니느웨에서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구약성경의 주요 운동이 있습니다. 니느웨(아시리아인)는 기원전 612년에 멸망할 것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인에게 예언하고 기본적으로 "니느웨,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보라,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게 잔인했지만 요나의 설교에 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요나를 자신의 배경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의 설교에 회개했지만, 몇 년 후 나훔은 아시리아에 대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다시 예언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원전 612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남쪽에서 올라와서, 바빌로니아는 북쪽으로 티크리트 지역으로 올라가서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있는 곳에서 니네베를 물리쳤습니다. 기원전 612년에 니네베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잠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니네베에서 훌륭한 고고학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니네베는 612년에 바빌로니아인들에게 함락되었고, 이제 바빌로니아인들이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의 북쪽 열 지파를 흘렸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이 시기에 예언했던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여러분은 그 이야기들 중 일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지식인들을 바빌로니아로 데려갔습니다. 605-597년경에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고, 느부갓네살은 참을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들어와서 기원전 586년에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네 가지 기본적인 날짜만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이고, 다윗이 기원전 100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다른 날짜 중 하나는 기원전 5

86년에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금으로 덮였고, 웅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586년에 파괴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평평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안식년의 관점에서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에 70년 동안 머물 것이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땅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490년 동안 땅에 안식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땅에서 데려내어 땅이 안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심판을 받았고,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느부갓네살이 있었고,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성전이 없어지면서, 성전은 그들이 신을 경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신은 느부갓네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했지만, 이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온갖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호와/야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강할까요? 글썄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이제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에 대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N.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40:06-42:41]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 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응답 이라고 믿습니다 .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주님을 거부했고, 그의 언약을 어겼고, 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땅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십니까 ?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586년, 그들은 70년 동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빌론에 앉아 있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앉아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갑자기 539년에 바빌론은 키루스에게 함락됩니다. 키루스 대왕이 들어와서 차지합니다. 이 키루스는 사실 키루스 2세지만 키루스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539년에 들어와 바빌론은 이란의 산에서 이라크의 평원으로 내려와 바빌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인들에게 함락됩니다. 메디아-페르시아인의 왕인 키루스는 일종의 메디아-페르시아인들의 결합 제국입니다.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키루스는 그들을 바빌론으로 이끌고 539년에 바빌론을 물리칩니다.

그럼 키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인이나 아리아인은 셈족이 아니므로 키루스는 바빌로니아인처럼 셈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으로 변화입니다. 이제 키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루스의 기원은 539년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주요 왕이고, 페르시아 기간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키루스가 바빌로니아를 함락시킨 539년부터 기원전 333년까지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원전 333년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날짜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333년은 666의 절반이죠. 333은 누구의 숫자일까요? 기원전 333년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새겨두기를 바라는 날짜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400년은 구약성경이 끝나는 해이지만 333년은 알렉산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실제로는 334지만 반올림했습니다. 333은 666의 절반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는 약 10~12년 안에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0. 키루스 대왕이 행한 일 (BBBLE) [42:41-47:01]

하지만 키루스로 돌아가 봅시다. 키루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키루스가 처음에 한 일에 대해 이 작은 두문자어 "B B- B ible", "BBBLE"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키루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루스는 그가 살기 약 2~300년 전에 이름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기원전 700년 조금 전 이사야가 쓴 글(키루스는 기원전 539년에 살아 있었습니다)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키루스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키루스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나의 목자이다” (‘목자’라는 단어는 ‘왕’의 다른 이름이며, 왕은 목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이며 그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에 말할 것이다. 키루스는 예루살렘에 ‘중건하라’고 말할 것이고 성전에 대해 ‘기초를 놓으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이것은 주[*col amar YHWH*]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다.” 기름 부음받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메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빠르게 두 번 읽어보세요. 메시아처럼 들리지 않나요?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메시아가 그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키루스 대왕은 이사야 45:1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받은 자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키루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용어는 키루스, 즉 키루스라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메시아라는 용어는 나중에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메시아흐”라는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들어오면,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크리스토스”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인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받은 자 예수님, 메시아,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용어가 이사야 45장 1절에서 키루스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메시아, 키루스에게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나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키루스는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고레스가 에스라서에서 언급된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고레스는 포고령을 내렸고, 고레스가 내린 이 포고령은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사야가 이 기름부음받은 자와 이 기름부음받은 자가 할 일에 대해 예언한 것을 성취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이하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한다. (작은 서문에 주목하세요. 익숙한 듯하지만 이름만 다르지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야훼)께서 땅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나를 임명하셨다. 너희 가운데 그의 백성이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래서 키루스는 바빌론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에스라 1장에 있는 키루스의 칙령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이 국고에서 왕의 돈을 사용하여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P. 키루스가 위대한 이유-자비심 [47:02-48:33]

키루스, 이게 제 다음 요점인데, 키루스는 자애로운 사람입니다. 키루스는 자애로운 사람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잔인했고, 사람들을 꿰뚫어 머리를 잘라내고 가족을 벗기고,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피부를 벗겨내어 새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잔인하게 이스라엘의 북쪽 열 지파를 흘렸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왕 시드기야를 눈멀게 하고 거기서 온갖 일을 저지른 후 70년 동안 바빌로니아로 강제 이주시켰지만, 어쨌든 바빌로니아인들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 이제 키루스가 들어와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 기본적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시리아인과 바빌로니아인에 의해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키루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 여러 면에서 이 사람은 자애로웠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한 가지이고, 자애롭고 친절하다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키루스는 강했고, 그는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친절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통치는

자애로운 통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지역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신, 여호와께 자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를 뒤집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42,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 중 일부는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뉴욕시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보다 뉴욕시에 더 많은 유대인 인구가 있습니다. 이산, 흩어짐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Q. 고레스의 확장: 바빌론 [48:34-51:05]

키루스는 황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제국들을 내려다보며, "좋아요, 바빌론을 얻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 개의 제국을 봅니다. 첫째, 그는 이란의 산 위에 있습니다. 그는 내려다보며 세 개의 제국을 봅니다. 하나는 바로 그의 발치에 있는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바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B입니다. 그는 바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터키를 내려다보며 터키, 또는 소아시아에서 리디아 제국을 봅니다. 터키에 있는 리디아, 그리고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이소스는 매우, 매우 부유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크로이소스는 금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키루스는 그것을 듣고, "좋아요,

이제 우리는 바빌론을 점령했고, 나는 사람들을 해방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그런데, 그가 바빌론을 점령했을 때, 그에 대한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바빌론에는 나보니두스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키루스와 싸울 나보니두스는 일종의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바빌론을 떠났고, 바빌론은 마르두크 신을 섬겼지만, 나보니두스는 “나는 태양신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그는 떠났고 신비주의자가 되었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사람들은 “우리 왕은 어디 있지? 그는 신비주의자가 되어 사막에서 수도사 같은 짓을 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키루스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 키루스가 유프라테스 강을 돌려 바빌론으로 들어가 바빌론을 정복했는데, 성문을 부수거나 성벽에 망치를 박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라앉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의 부하들을 내려보냈습니다. 페르시아 전문가이자 페르시아에 대한 4-5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쓴 에드윈 야마우치 박사는 유프라테스 강이 방향을 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방향을 돌리기에는 꽤 큰 강이지만, 그는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에서 흘러나온 운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그들은 운하를 돌려 운하 아래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키루스는 훌륭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성벽 아래로 들어가 이 운하를 돌려 그의 부하들을 보냈고, 그들은 바빌론을 점령했습니다

. 바빌론 사람들은 실제로 키루스를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가 여기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키루스가 사막에 있는 그들의 왕 나보니두스보다 바빌론의 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R. 키루스가 리디아(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제압한다 [51:06-54:22]
]

그래서 그는 바빌론을 점령하고, 이제 리디아를 바라봅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크로이소스를 쫓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아시아와 리디아, 특히 크로이소스를 페르시아의 주권 아래로 끌어들이고 싶어했습니다. 키루스는 주권을 얻고 싶어했기 때문에 훌륭한 칼빈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그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기본적으로 크로이소스가 키루스가 자신을 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 있는 델파이 신탁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본적으로 '델파이 신탁, 여기서 내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줘. 나는 키루스와 싸워야 할 거야. 이길까, 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델파이 신탁은 훌륭하게 "위대한 제국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크로이소스가 "위대한 제국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키루스에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탁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파괴된 것은 키루스의 제국이 아니라 그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신탁은 모호했고, 그래서 신탁이 어느 쪽이든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 중 하나는

이기고 그들 중 하나는 질 것입니다. 결국 크로이소스가 졌습니다.

또한 말과 낙타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크로이소스는 말을 다루는 사람이었고, 소아시아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말은 왜 있는 걸까요?말은 이렇게 크고 , 말은 이렇게 넓습니다. 말은 꽤 크고, 말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말은 낙타에 비하면 어떨까요?낙타는 이렇게 키가 크고, 낙타는 이렇게 넓습니다. 낙타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의 말들이 키루스의 낙타와 맞섰을 때, 말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종종 낙타가 냄새가 나고, 말이, 음...저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시나이에 갔는데, 밤새 낙타 옆에서 잤는데, 이 낙타가 우리 텐트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당신이 평생 말을 수 있는 최악의 숨결 중 일부입니다. 낙타는 이를 닦지 않고 숨결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음탕했고, 밤새도록 숨을 쉬면서 정말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껍뻍거렸고, 정말 깊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껍뻍거리고 우리 텐트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이 낙타와 함께 정화조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낙타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저는 낙타라는 동물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낙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짐승입니다. 하지만 낙타와 말을 비교했을 때 낙타는 어느 정도 유리합니다. 어쨌든 키루스는 리디아를 물리치고 파괴하고 기본적으로 점령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인더스 강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이란의 페르시아를 거쳐 이라크까지 이어졌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이집트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지만 아들 캄비세스를 보내 이집트를 점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이집트로 보냈는데, 그 아들은 자기와는 달리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다. 고레스의 죽음 [54:23-56:38]

이제 우리는 바빌론과 나보니두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빌론의 신비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보니두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디아, 크로이소스, 델파이 신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두문자어에서 "BBLE"을 보세요. 그리고 그는 이집트를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빌론, 리디아, 이집트, 그가 차지한 세 왕국입니다. 키루스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키루스는 매우, 매우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디아와 이곳 지역에서의 전투를 마쳤을 때 약 70세였습니다. 그런 다음 북쪽으로 가서 이곳의 다른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키루스는 7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70세의 노인이 전쟁에 나갑니다. 이 사람은 전사입니다. 그는 군대를 이끕니다

. 그는 집에 머물까요, 아니면 군대를 이릅니까? 그는 군대 앞에 서서 군대를 이끄는 왕입니까?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군대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봄에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밋세바와 어울렸습니다. 키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루스는 70세에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70세의 남자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아니요, 키루스는 결국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제 그가 쓰러졌을 때, 왕이 쓰러졌을 때, 당신은 그의 부하들로부터 매우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의 시신을 들어올려 천 마일을 운반합니다. 그들은 키루스의 시신을 천 마일을 운반하여 제대로 매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르시아의 수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천 마일을 다시 운반합니다. 그것은 전사이자 지도자였던 이 왕이 부하들로부터 받은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그의 시신을 너무나 존경하여 제대로 매장하기 위해 천 마일을 운반했다는 것일까요? 키루스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서는 그를 “메시아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기름 부음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키루스는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고, 그의 군대는 그런 식으로 그를 존경합니다.

T. 캄비세스의 통치 [56:39-57:43]

F. 페르시아인 캄비세스, 다리우스

[짧은 영상: T-AC 결합; 56:39-73:02]

이제,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캄비세스는 사소한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캄비세스는 이집트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가 델타 지역, 델타 블루스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던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시나이 산,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가 멤피스입니다. 왕이 묻힌 곳입니다. 엘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있던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델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알렉산더를 기리기 위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여기로 와서 이집트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곡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음식과 물건이 있습니다. 기근이 들 때마다 어디로 가나요? 기근이 들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 때마다 이집트로 가는데, 거기에 음식이 있거든요. 이게 곡창지대, 나일강이에요. 물과 음식이 있으면 언제나 괜찮죠.

U. 캄비세스, 키루스의 아들 [57:44-60:02]

이제 캄비세스는 530-522년경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약 8년 동안요. 저는 이 남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TEASE"라는 두문자어를 사용해서 그의 업적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집트를 차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집트에는 아마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고, 파라오나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시스는 딸을 주었고, 딸을 캄비세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와 비슷하게, 솔로몬이 예전에 파라오의 딸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이집트인들이 딸을 외국인에게 주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와 아마시스의 딸을 얻어야 했지만, 아마시스 왕은 캄비세스에게 딸을 주지 않고,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딸을 캄비세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이 변화 때문에 아마시스에게 완전히 침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아마시스가 죽는 것입니다(그런데 이집트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매장하고, 기본적으로 시체를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시체를 고칩니다. 캄비세스는 그런 다음 칼을 들고 아마시스의 시체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글썄요, 이집트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쁩니다. 그들은 시체를 나중에 존중하기 때문에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모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자르지만 시체가 방부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체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아마시스의 시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왕에 대한 완전한 침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집트 문화에 대한 완전한 침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캄비세스는 이집트 문화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아마시스의 시체인 송아지를 훼손합니다.

캄비세스 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은 짧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V. 캄비세스와 아프시스 황소 [60:02-61:24]

이제 아프시스 황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프시스 황소는 이집트인들이 이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프시스 황소 말입니다. 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모든 사람이 아프시스 황소를 경배했던 아프시스 황소 말입니다. 캄비세스가 하는 일은, 그는 페르시아인이고, 아프시스 황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아마도 "이봐, 저기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잖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시스 황소를 죽이고, 칼을 들고 아프시스 황소를 찔렀습니다. 다시 한번 이집트 문화를 완전히 어기고, 그는 그들의 신인 아프시스 황소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의 입장에서 정말 나쁜 움직임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캄비세스가 말을 탈 때 자신을 찔러서 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캄비세스가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채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루스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찔러서 사실상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린 건, 그가 스스로를 찔러 죽고 아프시스 황소도 찔렀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르마 같은 게 있어요. 그가 나쁜 짓을 했고 그 나쁜 짓이 그의 머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캄비세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캄비세스는 진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아버지의 자리를 채우지 못했지만 이집트를 차지했고 그 아래에는 온갖 갈등이 있어요.

㉓. 캄비세스와 에티오피아 [61:25-62:05]

그는 에티오피아와 시와라는 사막으로 가려고 했지만 사막에서 먼지 폭풍으로 부하들을 잃었습니다. 저기의 먼지 폭풍은 기본적으로 그의 부하들을 덮치는 거대한 먼지 폭풍이었고 그는 사막에서 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탐구하던 중 군대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일강 서쪽으로 나가 사막에서 군대를 잃었습니다. 그다지 현명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캄비세스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화를 훼손했고 결국 스스로를 찢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캄비세스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X. 페르시아 제국의 조직자 다리우스의 통치 [62:06-65:56]

다음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키루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였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많은 왕국을 차지한 위대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할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조직자입니다. 다리우스는 조직자입니다. 키루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까지 이어졌고 다리우스는 조직자였습니다. 그가 할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다리우스는 베히스톤 비문을 만들 것입니다. 베히스톤 비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 런던에 가게 된다면, 고든 칼리지 학생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런던에서 돌아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요. 런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요... 대영박물관에 갔나요? 대영박물관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영박물관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이 돌을 보고 바로 이 돌로 다가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돌의 이름은--제가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부분 "로제타 스톤, 원하는 모든 언어를 가르쳐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사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런던의 대영박물관에는 실제로 로제타 스톤이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이 뭐죠? 세 가지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제타 스톤을 통해서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로제타 스톤 덕분에 이집트 상형문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스톤은 이런 연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베히스툰 비문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베히스툰 비문이 뭐죠? 다리우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키루스의 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했죠. 그래서 [다리우스]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산의 일부를 깎아 거기에 “나는 위대한 다리우스이고 나는 이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모든 홍보 자료를 말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는 세 가지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세 번째 언어는 아카드어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인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비문을 발견했고, 그 사람이 1800년대나 1800년대 후반에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한 실제 탐험가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탐험가는 기본적으로 사다리를 얻었고, 이 사다리는 100피트 이상 높이였고 이 사람이 100피트 높이의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그가 사다리를 놓은 가파른 난간은 불과 18인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다리를

놓았고, 이 사람이 이 산을 올라갔고, 그는 손으로 모든 글을 한 곳에, 모든 글을 다른 곳에, 그리고 모든 글을 세 번째에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것은 아카드어 또는 바빌로니아어였습니다. 이 베히스톤 비문을 통해 우리는 아카드어 또는 바빌로니아어, 고대 바빌로니아어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산비탈에 이 베히스톤 비문을 기록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대영박물관에서 베히스톤 비문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대영박물관은 고대 세계에서 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쳤지만 산은 훔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베히스톤은 이란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고, 사람들은 그가 번역자로 여겨졌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가 산 스타일의 광고나 빌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 옆에 빌보드를 만든 것입니다. 다리우스, 그게 요즘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Y. 다리우스가 제국을 조직하다: 총독들 [65:57-67:08]

그는 또한 자애로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애로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의 왕, 이집트에서 아프시스 황소를 인도하는 사람 다리우스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 금 100달란트나 뭐 그런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집트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는 확고하지만 자애로웠습니다. 부모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좋은 조합입니다. 저는 결코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나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조직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까지 이어지고 그리스까지 이어집니다. 엄청납니다. 이집트까지 내려가 터키까지 올라가고 바빌로니아, 아프가니스탄, 이란까지 이어지고 이집트까지 이어집니다. 다리우스는 그것을 여러 지방으로 조직합니다. 그는 그것을 총독령, 총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사람이 이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을 여러 지방으로 나눕니다.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그런 다음 이 지방을 다스리는 특정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그는 제국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이 사람이 조직자입니다.

z.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제국의 거리들 [67:09-69:59]

그는 또한 도로 체계를 건설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그가 도로 체계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있을 때마다 제국의 여러 지역과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는 이 도로 체계를 건설했고, 제국 전역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통신을 위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국 전역에 도로망을 건설하면 제국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다른 곳에 군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건설한 이 도로 체계와 건설된 도로 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택배를 보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그리스 역사가였다는 것을 읽어 드려야겠습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다리우스의 도로 체계와 택배와 다른 것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라티우스가 다리우스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눈도 비도 더위도 밤의 어둠도 각자가 지정된 임무를 최대한 빠르게 완수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눈도, 비도, 더위도, 어둠도 막지 못한다...” 다리우스와 그의 도로 체계에 대한 이 진술은 뉴욕시 우체국 위에 있고, 이것이 우리 우체국이 “비도, 눈도, 진눈깨비도, 우박도” 우리 우편 체계를 통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어쨌든 헤로도투스의 이 인용문은 우리 우편 체계 위에 있고, 도로 체계를 조직한 다리우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글썄요, 다리우스는 사실 이 도로 체계에 대해 꽤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AA. 다리우스와 수에즈 운하 [69:00-69:35]

다리우스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들이 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없다면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파기 작업을 시작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장비도 없었고, 모래와 그런 것들도 다 있었지만, 아이디어는 있었고 실제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수천 년 후에 사람들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큰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AB. 다리우스와 그리스 [69:36-70:09]

이제 그는 그리스와 싸워야 합니다. 이집트, 터키,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와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그는 군대를 그리스로 보냈고, 바다에서, 그는 그의 부하들을 그리스로 보냈고, 그는 바다에서 2만 명을 잃었습니다. 바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바다에 가본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의 부하 2만 명이 바다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는 여전히 깨기 힘든 난제입니다.

AC. 다리우스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건축을 완료함 기원전 515년 [70:10-73:02]

그러나 그는 그리스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성전의 건축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치하에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515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 치하의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약, 오, 모르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 직후부터 그 무렵인 931년경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400년 또는 500년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첫 번째 성전을 파괴하고(기원전 586년) 두 번째 성전은 다리우스 치하에서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첫 번째 성전 시대"와 "두 번째 성전 시대"라고 부르는 기간으로 연대를 정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515년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 2장.

사람들은 그것에 약간 화를 내며,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말한다. 헤롯은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 걸렸다. 이제 헤롯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두 번째 성전은 아마도 실제로 꽤 작았을 것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을 때 노인들은 실제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울었고 젊은이들은 “그래, 우리가 완성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전을 본 노인들은 이것은 오래된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습니다. 헤롯은 헤롯이 이 거대한 플랫폼을 재건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벽의 주름이 정확히 어디인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성전 산의 플랫폼을 확장하고 46년 후에 지은 곳입니다. 헤롯은 놀라운 건축가였고,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스투바벨과 여호수아가 지은 것을 가져와 기본적으로 거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헤로다인 성전, 두 번째 성전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두 번째 성전은 서기 70년경에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이 들어와 성전을 쓸어버리고 예수께서 올리브 산 담화에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무너진 돌들 중 일부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성전 산에서 무너진 돌들 중 일부는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다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서기 70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515년에서 서기 70년경까지인 제2성전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약 40년 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다리우스 치하에서 완공되었습니다.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조직자였고 그는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서기 300년경 크세르크세스: 바빌론, 에스더, 그리스 (BEG-300) [73:02-74:48]

G: 페르시아인: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

[짧은 영상 : 결합 : AD-끝; 73:02-81:45]

다음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누구일까요? 크세르크세스는 약 486년에서 시작해 약 465년까지 내려가는데, 그는 그곳에서 약 20~21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를 부르는 약어는 "BEG-300"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다리우스의 아들이며 그 일을 위해 길러졌습니다. 바빌론이 반항합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일은 바빌론이 여기에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그들의 신의 벨 마르두크 동상을 가져다가 녹입니다. 그는 벨 마르두크의 금 동상을 가져다가 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보십니까? 이것은 그들의 주요 신이고, 그는 그것을 녹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가 당신의 얼굴에 있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없애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크세르크세스는 멍청이"입니다. 저는 그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기, 이 사람이 에스더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그의 아내 바스티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필립스 박사와 다른 사람들은 바스티 왕비가 머리에 왕관만 쓰고 파티에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스티는 "저는 그렇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가 "그럼 당신은 제 왕비가 될 수 없군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국을 수색하여 에스더를 발견하고 에스더가 그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기가 전개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멍청이' 였지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후에 유대인을 살려주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실제로 에스더기에 기록된 유대인을 살려두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위해" 에스더가 일어나고, 그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AE. 그리스의 크세르크세스 [74:49-76:21]

그는 그리스로 갑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실제로 그리스에 도착합니다. 그는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영토를 유지할 만큼 강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그냥 불태우고 후퇴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살라미스에서 전투에서 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에 도착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을 불태웁니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페르시아가 후퇴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우리는 300명의 스파르타인이 수천 명의 페르시아인을 막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매우 좁은 통로에 있었고, 이 300명의 스파르타인은 크세르크세스의 수천 명을 막고 맞섰습니다. 그것은 단지 스파르타인의 위대한 전사적 기질을 보여줍니다. 300명은 페르시아인을 늦추고 그리스인에게 크세르크세스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집결시킬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추천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제 아들이 강제로 보러 가게 했지만, 영화 "300"은 실제로 그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공격하고, 그리스를 불태우고, 그리스와 싸웁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AF.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통치 [76:22-77:47]

이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술잔 담당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읽을 때,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대한 훌륭한 책이고 리더십 원칙에 관심이 있다면 잭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에 가면 느헤미야서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5개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훌륭한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지도자이자 술잔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고 밤에 할 것이고 정말 멋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다리우스 치하에서 완공된 성전이 있지만, 그것을 보호할 성벽이 필요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이집트가 이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진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서쪽의 그리스인들과 이집트가 연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반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역적으로 서쪽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을 반격하고 동쪽 사람들이 서쪽 사람들에게 반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종류의 지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에즈라는 서기관과 제사장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당신은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G. 페르시아 제국의 붕괴 [77:48-81:45]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후에, 기본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해체되고 기본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2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리스의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아테네는 북쪽 아카이아에 있었고 스파르타는 남쪽 펠로폰네소스에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싸우고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 글썄요, 둘 다 그리스인이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부와 남부의 미국 남북 전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남쪽에 있습니다. 스파르타인은 전사이고 아테네인은 철학자 유형이지만 그들도 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제 스파르타인이 승리하기 시작하면 페르시아인은 누구를 지원할까요? 스파르타인이 승리하기 시작하면 페르시아인은 아테네를 지원하고 아테네가 올라올 것입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물리치기 시작하면

페르시아인들은 스파르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이 한 일은 그들을 전쟁 상태로 유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 사람을 지원했고 그러면 진 사람이 나와서 계속 싸우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정책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항상 진 사람을 지원하고 사람들은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의도적으로 그리스인들을 계속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와 싸우게 하면 그들은 당신과 싸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 시기에 일어났고 페르시아인들은 이 무렵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400년경입니다. 이는 구약성서 말라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여기 제노폰이 쓴 아나바시스라는 멋진 책이 있습니다. 아나바시스는 제노폰이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 역사가였고, 기본적으로 10,000명, 11,000명의 그리스 용병들이 고용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실 그리스인들은 용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에게 고용되어 전투 중 하나에서 싸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는 이 10,000명의 그리스인을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전사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 전사들은 와서 이 남자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루스였던 것 같습니다. 3세나 4세였거나 뭐였을까요? 그들은 이 남자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 남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빌론 근처의 메소포타미아 한가운데에 이 10,000명의 그리스인을 모두

모았습니다. 글썄요, 그리스인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할까요? 그리스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제노폰의 이야기는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세계의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인 듯합니다. 이 1만 명의 그리스 군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와 페르시아인들의 용병이 되어 그리스로 돌아가는 길에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노폰의 아나바시스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웅 이야기이고,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서 나온 위대한 영웅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다리우스 3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입니다. 대체로 이 다리우스 3세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과 머리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또는 제가 부르는 대로 "알렉산더 더 그레이프";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3세와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무찌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알렉산더의 연대는 언제였을까요? - 666년의 절반; 알렉산더의 연대는 기원전 333년입니다. 알렉산더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페르시아인은 대체로 약 500명에서 약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는 약 200년이고, 333년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정복하고 그들이 수년간 그리스에서 저지른 모든 선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Alexis Hahn과 Ashley Holm이 필사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